

## 전주 완산초 학부모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바자회

전주 완산초등학교 학부모회(완산맘스클럽)가 지난달 30일 교내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에서 학부모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나눔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알뜰 장터와 함께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주 완산초 및 곤지중 학부모와 지역주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013년 '완산골 교육공동체'를 꾸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완산골 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주민이 어우러져 교육과 지역문제를 이야기하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학교·마을 축제도 열고 있다.

김종표 기자